

실험결과보고서

10509 박서진

식물 종 탐색

실험일자

2026.05.27(수)

실험목적

학교 내 다양한 식물을 직접 관찰, 조사하여 식물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식물의 위치 정보를 기록해 학교 내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며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준비물

스마트폰, 카메라, 구글 렌즈, 구글지도, 구글폼, 필기구

실험과정

1. 학교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식물을 관찰한다.
2.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식물 사진을 찍는다.
3. 구글 렌즈와 구글지도를 이용하여 식물의 이름과 위도, 경도를 확인한다.
4. 식물의 학명, 특징 등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폼을 작성한다.

실험결과
및 고찰

이번 활동에서는 조원들과 함께 학교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조사하였다. 구글 렌즈를 활용하여 식물의 이름과 학명을 확인하고, 사진과 위도·경도 정보를 기록하여 식물 지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57종의 식물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가자니아, 산수국, 샬스타데이지, 인동덩굴, 팬지 등 평소에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식물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학교에 있는 식물들이 비슷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꽃의 색이나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종인 경우가 많았고, 같은 공간 안에서도 식물마다 자라는 위치와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생물 조사가 단순히 생물의 이름을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정보와 관찰 기록을 함께 수집하여 생태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학교 공간도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생태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주변 환경을 자세히 관찰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 내 식물의 분포는 환경 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추가탐구

-> 이번 활동에서는 식물의 종류와 위치를 조사하는 데 집중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식물마다 자라는 장소가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 햇빛이 잘 드는 화단에는 가자니아나 샬스타데이지가 많이 관찰되었고, 상대적으로 습하거나 그늘진 곳에서는 산수국과 같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식물의 분포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빛, 토양, 수분과 같은 환경 조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만약 학교 내 식물들의 위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뒤, 일조량이나 토양 상태와 비교한다면 각 식물이 선호하는 환경 조건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이번 활동은 특정 시점의 식물만 조사한 것이므로, 계절에 따라 어떤 식물이 새롭게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장기간 관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를 통해 학교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계절 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탐구로 발전시켜 보고 싶다.